

韓國 都市地域(市) 人口成長의 構成要素： 1960—1970

俞 義 瑛

지난 十年間 韓國의 都市成長은 하나의 不均衡한 成長이었다. 1960年 센서스 當時, 韓國總人口의 28%를 차지하고 있던 行政區域上 市에 居住하는 人口는, 6,997,000人이었다. 그러나 1966年 센서스에는 9,795,000人(總人口의 34%)으로, 1970年 센서스에는 12,950,000人(總人口의 43%)으로서, 1960年—1966年의 6年間に 2,798,000人, 그리고 1966年—1970年의 4年間に 3,160,000人의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本 論文은 1960年—1966年과 1966年—1970年 兩期間의 都市人口成長 構成要素와 各構成要素 相互間의 相對的 寄與度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分析에서 1970年—1972年間의 서울市 人口增加도 아울러 言及할 것이다.

特定期間동안의 한 國家의 都市人口 規模는, 行政單位의 法的地位 變更(市의 昇格), 都市地域의 行政境界變更, 都市의 純人口移動, 都市地域의 出生과 死亡의 正差(net balance) 등 4가지 基本過程의 媒介作用을 통하여 變할 수 있다. 이 네가지의 要素는, 1960年과 1970年間의 韓國都市人口成長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都市人口增加에 있어 이 네가지 過程의 相對的 寄與度를 1960年—1966年 期間과 1966年—1970年 期間의 센서스에서 別途로 檢討해 보고자 한다.

都市成長： 1960年—1966年

1960年과 1966年 사이에 5개의 地域이 市로 昇格되었는데, 의정부(경기), 속초(강원), 천안(충남), 안동(경북), 울산(경남)이 그것이다. 1960年 센서스 當時, 1960年과 1966年 사이에 市로 昇格된 5개 郡의 原初地域에 居住하던 總人口는 同期間의 都市地域 總人口 增加 2,798,000人의 8%에 誠當하는 224,000人이었다.

27個 市의 人口 6,997,000人에 5個 郡의 224,000人을 合算하면, 1960年 센서스 當時, 이 地域의 人口는 7,221,000人이었다는 結論이 나온다. 따라서 1960年—1966年 센서스 期

* 本稿는 앞의 英文論文을 우리말로 要約 번역한 것이다.

間的 32個市에서의 人口增加는 2,574,000人인 셈이되며 이러한 增加는 境界變更, 純人口移動, 自然增加의 세가지 構成要素에 의한 增加인 것이다.

32個市중에 10個市에서 1960年과 1966年 사이에 境界變更이 있었다. 이러한 境界調整에 의하여, 10個市중에서 8個市는 人口가 增加되었고, 2個市에서는 人口가 減少되었다. 卽 이 境界調整에 의한 都市地域은 333,000人의 增加와 아울러 73,000人의 減少를 가져왔다. 結局 1960年中의 境界變更으로 인하여 260,000人이 純增加人口로 늘어났다. 이 併합에 의한 都市人口增加는 1960年과 1966年 사이의 總都市增加人口分 2,798,000人의 9%에 該當된다. 또한 이러한 人口增加는 1966年 센서스 當時 市로 昇格된 市를 포함하여 32개市에 居住하는 總增加分 2,574,000人의 10%에 該當되는 것이다. 1960年 32個市의 境界內의 7,221,000人에 併합에 의하여 늘어난 260,000人을 合算하면, 1960年 센서스 當時, 1966年の 32개市 境界內에는 7,481,000人이 居住하고 있었다고 推算할 수 있다. 1960年과 1966年間 市の 原初境界內에서의 人口差異는 2,314,000人이라는 것을 가려낼 수가 있는데, 이 增加分은 전적으로 純人口移動과 自然增加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다. 都市人口에 대한 精確한 自然增加率을 推定하는 데 있어서 信憑性 있는 人口動態 統計資料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1960年과 1966年 사이의 人口移動의 寄與度를 가려내고 이 기간동안 都市의 原初境界內에서의 總增加人口로부터 純人口移動에 依한 增加를 除함으로써 殘餘分을 가지고 自然增加率을 推定하였다.

韓國 都市人口增加에 寄與할 수 있는 人口移動에는 두가지 可能한 移動의 源泉이 있다. 하나는 國際人口移動이며, 다른 하나가 國內人口移動이다. 都市에서 얼마나 많은 人口가 다른 나라로 移出하였고, 移入하였는가 하는 統計는 利用 可能한 資料가 없으나 1960年과 1966年の 期間中에 都市에 있어 純國際人口移動의 總量은 무시되어도 무방할 程度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純人口移動의 推定은 1960年—1966年 기간동안에 있어서 國內人口는 폐쇄 되어 있다는 假定이 前提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에 있어 純人口移動의 增加는 전적으로 韓國內에서의 都市와 農村間의 人口移動의 結果에 起因하고 있는 것이다.

1960年—1966年 期間의 都市 純人口增加를 推定하기 위하여 센서스生殘比方法(census survival ratio method)을 使用하였다. 各道別 都市 純人口移動量은, 1966年 센서스에 推定된 各年齡集團의 男女數와, 年齡別·性別 特殊生殘比에 調整된 1960年 센서스 人口의 基盤 위에서 該當年齡集團에 屬하게 되는 人口數를 比較함으로써 推定된다. 센서스生殘比란 以前 센서스의 該當年齡「코호트」(cohort)에 대한 一定 센서스上的 特殊年齡集團에 있는 地域 혹은 全國 總人口의 比이다.

이러한 센서스生殘比方法을 使用함으로써 總人口移動을 正確히 推定하기 爲해서는 세가지 假定이 前提된다. 卽 첫째 全國人口는 閉鎖(closed)되어 있다는것, 둘째 年齡別·性別 特殊死亡率은 全國에 대한 것과 各道 또는 各市 等の 空間的(場所別)單位에 대한 것

과 같다는 것, 셋째 全國人口에 대하여 空間的 單位의 評價 範圍를 보여 주는 率은 두 센서스에 있어서 같은「코호트」에 대하여 同一하다는 것이다.

첫째번 假定에 국한하여 볼 때, 韓國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1960年—66年期間中の 國際人口移動이 必然적으로 閉鎖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既存의 資料를 가지고는 둘째번의 假定의 妥當度를 續斷하기가 難解하나 韓國에서는 生活樣式, 衛生的 條件과 生活水準의 觀點에서 볼 때, 國土의 零細性和 人口의 同質的 屬性으로 인하여 死亡力水準의 地域的인 差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셋째번 가정에 대해서도, 1960年과 1966年의 各 센서스에 있어서 該當年齡「코호트」에 대하여 증대한 變動을 하는데에는 커다란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센서스生殘比 方法의 構成메카니즘은 年齡資料에 상당한 범위로 評價「에러」를 바로잡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센서스生殘比는 1960年과 1966年 사이에 韓國都市의 純人口移動에 대한 합리적으로 만족할만한 推定을 단순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센서스에 比較可能한 年齡統計의 作成을 위한 몇가지 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1960年 센서스 報告書에 기재된 年齡資料는 韓國式 年齡計算體系를 기반으로 추출해 낸 것이다. 韓國式 年齡計算法에 따르면, 出生과 동시에 한살이 되고, 무조건 한해가 지나면 또 한살을 더해 준다. 그러나 1966년 센서스 보고서에 있는 年齡資料는 完全한 西歐式 滿年齡으로 推定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0年과 1966年의 兩年齡 統計를 比較하기 위하여, 1960年의 年齡統計를 滿年齡으로 換算하여야만 했다.

報告書에 記載된 韓國식 연령을 滿年齡으로 換算하는 한가지 단순한 方法은 그 韓國식 연령에서 한살을 빼면 된다. 卽 이 報告書의 나이가 21세이면 만나이로 20세가 되는 것이다. 이 方法은 年少者에게는 適用이 不可能하다. 특히 5세미만의 어린아이에게는 重大한 歪曲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1960年 센서스가 同年 12月 1日에 實施되었기 때문에 同年 1月 1日에서 부터 12月 1日에 이르는 기간에 出生한 아이는 韓國식 年齡計算法에 의하여 다같이 1세가 되고 1959年 12月에 出生한 아이는 2세가 되어서 위의 計算法에 따르면 센서스 당시 幼兒의 1/12은 1歲未滿의 年齡集團으로부터 除外되어 버린다.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다음의 公式에 의한 方法이다.

$$Y=1/12(X+2)+11/12(X+1)$$

여기서 Y 는 西歐式 나이이고 X 는 센서스케 나타난 韓國式 나이이다. 이 方法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이를 韓國식으로 기재했다면 완전하게 換算可能하다.

한 지역의 純人口移動의 規模를 推定하는데 있어서 다른 問題點은 그 期間동안에 地理的 境界가 一貫性을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1960년부터 1966年 사이에 많은 市가 境界變動을 가져왔지만 併合地域에 대한 詳細한 年齡統計가 1960年 센서스 報告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960年 센서스 당시 同地域에 居住하던 人口의 年齡別·性別 構造를 間接적으로 再構成해야 했다.

市의 併合地域은 年齡別·性別 構造가 부분적으로는 農村의 性格을, 부분적으로는 都市의 性格을 보여준다. 邑은 都市와 農村의 混合의 類型을 代表하는 理想的 地域이다. 서울로 併合된 地域에 대하여는 경기도내의 邑과 그 併合地域이 다른 道보다 都市의 屬性을 더 많이 가졌다고 보고 경기도의 邑의 年齡別·性別 構造를 適用하였다. 다른 道의 併合地域은 한국 전체의 邑人口의 年齡別·性別 構造를 適用하였다.

다른 또 하나의 作業이 1966年 센서스의 年齡統計에 가하여져야만 했다. 1960年 센서스는 1960年 12月 1日에 施行되었고, 1966年 센서스는 正確하게 5年 10個月이 지난 10月 1日에 施行되었다. 該當年齡 “코호트”를 作成하기 위한 必要한 人口의 再集合은 센서스의 年齡資料가 月別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補插法(interpolation method)에 의하여 作成되었다.

위와 같이 調整한 後에 各道別 都市地域의 年齡別·性別 純人口移動量を 아래와 같이 推定하였다.

$$NM_i = P_i^{1966} - SP_i^{1960}$$

여기에서 $S = P_c^{1966} / P_c^{1960}$ 는 特定年齡集團에 대한 生殘比이다.

P_i^{1966} 는 1966年 센서스에 나타난 特定年齡集團에 있어서의 i 번째 道의 都市地域에 居住하는 人口이고,

P_i^{1960} 는 1960年 센서스에 나타난 5年 10個月미만의 年少者에 該當하는 人口이며,

P_c^{1966} 와 P_c^{1960} 는 各各에 該當하는 全國人口이다.

NM_i 는 또한 1960年과 1966年사이의 i 번째 道의 都市地域에 있는 該當 年齡集團의 純人口移動量이다.

센서스生殘比方法은 5年 10個月 또는 그 未滿의 年齡層이 1960年 센서스 當時에는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同年齡集團의 純人口移動量の 推定에 使用될 수 없다. 同年齡集團을 위해서 下記 公式를 使用한 間接的인 方法에 의하여 推定되었다.

$$NM_i(m, 0-5\frac{5}{6}) = \frac{1}{2} \times \frac{P_i(m, 0-5\frac{5}{6})}{P_i(f, 20-49)} \times NM_i(, 20-49)$$

$$NM_i(f, 0-5\frac{5}{6}) = \frac{1}{2} \times \frac{P_i(f, 0-5\frac{5}{6})}{P_i(f, 20-49)} \times NM_i(f, 20-49)$$

여기에서

$NM_i(m, 0-5\frac{5}{6})$ 는 1960—1966年 期間中 i 번째 道의 都市地域에 대한 5年 10個月 未滿年齡層에 있는 男子의 純人口移動量の 推定值이고

$NM_i(f, 0-5\frac{5}{6})$ 는 위에 該當하는 女子의 純人口移動量の 推定值이다.

$P_i(m, 0-5\frac{5}{6})$ 는 1966년에 i 번째 道の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5년·10個月 또는 그 未滿의 男子人口이고

$P_i(f, 0-5\frac{5}{6})$ 는 위에 該當하는 女子人口이고

$P_i(f, 20-49)$ 는 1966년에 i 번째 道の 都市地域에 거주하는 20-49歳の 女子人口이고

$NM_i(f, 20-49)$ 는 위에 해당하는 20-49歳の 女子의 純人口移動量이다.

이 方法은 上記의 年齡集團層이 그들의 母의 人口移動類型을 따르고 1960—1966年の 센서스사이 期間에 걸쳐 高르게 出生하였다는 假定에 따른다.

1960—1966年 사이 都市地域의 總純人口移動에 의한 증가는 센서스生殘比에 의하면 남자가 530,000人이고, 女子가 538,000人이다. 이것은 1966年 센서스 當時 5年 10個月 또는 그 이상의 연령층의 純人口移動量이다. 間接的인 方法으로 算出한 5年 10個月 未滿의 年齡層에 대한 都市地域의 純人口移動量은 男子가 35,000人이고 女子가 33,000人이다. 이들을 합하면 1960—1966年 期間中 都市地域에 대한 總純人口移動量이 1,136,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純人口移動에 의한 증가는 1960—1966年の 都市人口 全體增加分の 41%에 該當하고 1966年 市로 승격된 地域을 포함한 32個 地域의 증가분의 44%에 해당한다.

都市의 總人口成長의 나머지 部分은 自然增加로서 1,178,000人인데 이것은 都市의 全體人口增加의 42%에 該當되고 1960—1966年の 32個市의 增加分の 46%에 該當된다. 이 分析에서 우리는 1960—1966年の 도시지역의 年平均自然 增加率은 0.0251로서 全國의 自然增加率 0.0267보다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남(부산포함)의 都市地域은 併합에 의하여 人口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충북, 충남은 都市의 全體人口增加의 $\frac{1}{3}$ 이 併합에 의한 것이고, 경남은 $\frac{1}{4}$ 이며, 서울은 併합에 의한 것이 1960—1966年の 人口增加의 11%에 該當한다. 한편 전남, 경북은 境界調整에 의하여 都市人口가 減少하였는데 전남은 併합에 의한 감소량이 전체 도시인구증가의 11%이고 경북은 24%나 된다.

純人口移動이 가져온 都市人口增加에 대한 貢獻度는 道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그것이 全體人口增加의 58%로서 가장 높다. 다른 地域에서는 自然增加가 總增加人口의 半을 넘는다. 그러나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는 純人口移動이 상당한 寄與를 하고 있으나 충북과 전북은 거의 寄與를 하지 못하는 편이다.

서울은 1960—1966年の 센서스 사이 기간에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의 거의 70%를 흡수했다. 경기, 전남, 경북의 都市地域은 各各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純人口移動總量의 5—10%를 받아 들이고 있다. 다른 都市地域은 都市로의 總純移動量의 적은

부분만을 吸收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農村地域으로부터 많은 移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 都市地域으로부터 서울로의 移出에 의하여 相殺되기 때문이다.

特記할 만한 事實은 1960—66年の 都市地域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이 2.51%로서 同期間의 全國의 경우 2.67%보다 훨씬 낮게 推定된다는 事實이다. 이 事實은 다른 研究의 結果와 一致하고 있다.

이 自然增加率은 各道의 都市地域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와 강원도의 都市地域의 自然增加率은 全國의 그것보다 높은데, 그것은 제주도와 강원도가 生態學的으로 韓國의 主要한 工業都市의 中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事實로 說明할 수 있다.

또한 刮目할 事實은 낮은 自然增加率을 보여주는 都市地域이 바로 純人口移動增加分の 最少量을 흡수하는 地域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충북(2.45), 전북(2.44), 및 경남(2.34)은 다른 都市地域의 自然增加率보다 낮으며 純人口移動增加分の 比重도 가장 낮다.

最低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을 보이는 慶南(2.34%)은 부산의 낮은 出産率의 影響을 受けて 보여지며 馬山, 忠武, 三川浦는 1960—66年 동안에 커다란 人口移動의 減少를 겪었다. 그러므로 경남의 都市地域의 낮은 自然增加率은 土着的인 都市人口의 낮은 出産率을 反映한다고 볼 수 있다.

慶北道內 都市地域은 상당한 純人口移動에 의한 增加를 보여주면서도 매우 낮은 自然增加率(년 2.43)을 보여준다. 大邱는 1960—1966年 期間에 境界調整에 의해 상당한 人口의 減少를 招來했다. 이것은 調整된 地域이 性格上 農村의 性格을 띄고 있고 境界調整이 大邱의 行政的 境界內에 中心的으로 都市化된 부분만을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1960—1966年の 서울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은 2.56%로서 모든 都市地域의 平均인 2.51%보다 약간 높고 全國의 2.67%보다는 상당히 낮다. 서울이 이처럼 全國의 都市平均보다 높은 것은 (1) 最近 農村地域으로부터의 移入者의 높은 出産水準과 (2) 이들 移入者의 높은 自然增加를 일으키는 연령구조에 原因이 있다.

要約하면 1960—1966年の 센서스의 期間동안에 韓國都市地域의 人口增加는 市로의 昇格, 併合, 人口移動, 自然增加의 네가지 構成要素로 推定된다. 行政的인 地位의 變更은 1960—1966年 總도시인구증가의 8%를 차지한다. 純人口移動과 自然增加는 各各 總都市人口增加의 41%와 42%를 寄與하고 있다. 1966年 센서스 當時 市로 昇格된 地域을 포함한 32個 都市의 人口增加는 併合에 의한 것이 10%, 人口移動에 의한 것이 44%, 自然增加에 의한 것이 46%이다.

都市人口增加에 대한 各 構成要素의 寄與度는 道에 따라 다르다. 서울은 1960—1966年에 純人口移動이 人口增加의 58%를 차지하여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이 期間에 서울은 都市地域의 總純人口移動의 70%를 吸收하여 韓國의 都市化를 主導하였다. 純人口移動이

여러 地域에서 人口增加에 상당한 寄與를 하고 있었지만 서울을 除外한 모든 都市地域에서 自然增加는 總人口增加에 으뜸가는 役割을 하였다.

都市成長：1966—1970

1970年 센서스에서 人口의 年齡 및 性別構造에 관한 比較可能한 資料가 아직 刊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6年 10月 1일부터 1970年 10月 1日까지의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을 해야만 한다.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刊行된 「총인구 및 주택조사속보」는 1970年 센서스에서 集計된 都市의 洞과 農村의 面등 最少行政單位의 人口를 보여준다. 1970年 센서스로부터 刊行된 統計資料와 同期間에 實施된 다른 諸調査의 結果가 利用可能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1966—1970年の 센서스期間의 各道別 都市地域의 自然增加率을 推定하여야 할 것이다. 都市地域의 통계에 의한 實際人口와 同地域에서 推定된 自然增加率을 基礎로 한 期待人口와의 差異는 1966—1970年間의 純人口移動量으로 看做된다. 이러한 接近은 1966—70年間에 都市地域에는 별다른 境界變更이 없었고 國際人口移動 또한 韓國의 人口變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可能하다. 이리하여 1966—1970年の 都市人口의 增加는 自然增加와 人口移動에 의하여 推定되어야만 한다.

1966—1970年の 센서스 期間中 韓國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은 調整되지 않은 센서스 集計에 依據해 볼 때 0.0189로 推定된다. 이것은 實際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왜냐하면 1970年 센서스의 正確한 比率이 1966年 센서스 比率보다 相對적으로 낮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1971년에 實施된 全國出產力調査에 의하면 1966—1970年 센서스 期間中 平均粗出生率은 31.0이었고 該當粗死亡率은 9.1이었다. 여기에서 1966—1970年の 年平均成長率이 2.19%라는것을 推定할 수 있다. 經濟企劃院에서는 1970年 特別人口調査의 資料에 依據하여 1970年の 粗出生率을 29.3, 該當粗死亡率을 8.5로 推定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特別人口調査에 따르면 自然增加率이 2.08임을 알 수 있다. 1966—1970년에 韓國의 出產力이 低下되었으므로 同期間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은 2.08보다는 약간 높게 推定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期間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은 2.0~2.2%정도가 되거나 그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질다.

그러므로 筆者는 1966—1970年間 道別 都市自然增加率의 推定基準을 1.9%라는 센서스 속보의 自然增加率과 2.0%, 2.1%, 및 2.2%라는 수정된 推定值를 使用하기로 하였다. 1970年 센서스의 年齡資料가 未備하기 때문에 1960—1970年の 各道別 都市地域의 自然增加率을 推定하기 위하여 便法으로서 1960—1966年の 全國自然增加率에 대한 道別 都市地域의 自然增加率의 比를 1966—1970年の 全國自然增加率에 適用하였다. 이 分析結果의 正確性은 全國의 自然增加率에 대한 各道 都市地域의 그것의 比가 1960—1966年の 期間

과 1966—1970년의 期間에서 같다는 假定的 妥當度에 달려 있다.

總增加로부터 自然增加를 空除함으로써 센서스期間의 純人口移動을 推定하기 위해서는 두 센서스 人口가 모두 過少推定이라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修正되지 않은 센서스總計에 수정된 自然增加率을 적용하면 純人口移動은 實際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 分析의 主要한 限界點은 센서스 集計 비율에 있어서의 地理的 差異와 두 센서스에서의 總量의 必要한 調整이 주의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데에 있다.

그러나 本稿의 目的은 各道의 都市人口成長에 대한 自然增加와 人口移動의 기여도를 밝히는 데에 있고, 사실 1966—1970년의 都市人口增加에 대한 이 두가지 構成要素의 相對的 寄與度는 自然增加率의 가장 낮은 推定値와 가장 높은 推定値 사이에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韓國 都市人口成長에 대한 純人口移動의 기여도는 1960—1966년에는 自然增加의 기여도보다 약간 낮았지만 1966—1970년에는 全體都市人口增加分の $\frac{3}{4}$ 을 차지하여 기여도가 크게 增加했다. 즉 以前에는 서울을 除外한 모든 都市地域에서는 自然增加가 純人口移動에 의한 增加보다 높은 기여를 하였으나 1966—1970년에는 강원과 충북을 除外한 모든 道에서 純人口移動이 自然增加보다 훨씬 重要한 貢獻을 하고 있다. 즉 서울에서는 以前의 센서스 기간에 純人口移動이 全體都市人口成長의 58%를 차지하던 것이 1966—1970년에는 80%로 증가하고 충남, 경북, 경남에서는 각각 20%, 57%, 11%였던 것이 약 70%로 上昇하였다. 이것은 대전, 대구, 부산의 經濟活動이 活發하게 된 것이 主要原因이다.

서울에 있어서 人口成長에 대한 人口 移動의 기여가 以前보다 1966—1970년에 顯著하게 나타났지만 韓國의 農村에서 都市에로의 人口 移動過程에서의 서울의 支配的인 位置는 약간 低下되었다. 즉 1960—1966년에 서울은 總 都市로의 純人口移動의 69%를 차지했으나 1966—1970년에는 60%에 불과했다. 한편 경남의 都市地域은 위와 같은 期間에 4%에서 18%라는 驚異的인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서울의 人口成長 : 1970—1972

1970—1972년의 期間에 대한 有用한 資料는 별로 없으나, 1971년과 1972년의 10월 1일에 서울市에서 實施한 人口調査의 資料를 利用할 수는 있다.

1970년의 센서스가 不完全한 것인 만큼 서울市 센서스 역시 完全하지 못하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修正하지 않은 資料를 使用할 수 밖에 없다.

韓國家族計劃協會에서 施行한 調査에서 보면, 1970년 10월 1일에서 1971년 10월 1일까지의 全國自然增加率은 2.2%로 算出되며 이것은 調査統計局에서 實施한 1970년의 特別人口調査의 結果와 거의 一致한다. 1960—1966년의 全國自然增加率에 대한 서울의 自然增加

率의 比를 1970—1972年의 全國自然增加率 2.2%에 適用하면 서울의 年平均自然增加率이 2.1%가 된다. 같은 比를 保守的인 方法에 의해 推定된 2.0%에 적용하면 서울의 該當比率이 1.9%로 나타난다. 서울의 自然增加率에 대한 이같은 2가지 修正方法에서 먼저 推定自然增加量을 導出할 수 있고 實際의 增加量에서 推定된 自然增加量을 빼면 純人口移動量이 나온다.

1970年 센서스에 의하면 同年 10月 1日 現在 서울人口는 5,540,000人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서울의 人口가 1971年의 特別人口調査에 의하면 정확히 1年동안에 310,000人이 增加하여 5,850,000人으로 나타난다. 1972年 10月 1日에는 또한 1971年 10月 1日보다 190,000人이 增加하여 6,040,000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人口增加率은 지난 2年間 상당히 減少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純人口移動量의 減少에 起因한다. 어떤식으로 推定하던지간에 서울에 있어서의 純人口移動이 人口증가에 寄與하는 퍼센트는 1970年 10月 1日부터 1971年 10月 1日까지 60%를 약간 上廻하고 있고 1971年 10月 1日에서 1972年 10月 1日까지에는 30~40%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1960年代 末期에 絶頂에 달했던 純人口移動의 增加趨勢가 1970년에 와서 下降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要約과 結論

韓國은 1960年 이래 農村과 都市間에 驚異的인 人口의 再分配現象을 겪었다. 行政上 區分된 都市地域에 居住하는 人口는 1960년에는 總인구의 28%이었던 것이 1970년에 와서는 總人口의 43%에 이르렀다. 韓國都市化의 또 다른 特徵的인 現象은 서울에서의 急激한 人口集中이다. 서울의 人口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10년동안에 2백60만에서 5백 50만으로 2배 이상 增加하였고 1972年 10月에는 6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1960년에 總都市人口의 34%에 달했던 서울의 人口는 1970년에는 43%에 달하였다.

本論文은 1960年—1970年의 都市人口增加의 構成要素와 各要素間의 相對的 寄與度를 밝히려고 시도되었으나, 1971年의 서울의 特別센서스와 서울특별시에서 推定한 1972年의 資料가 豫備的인 構成要素의 分析을 可能케 했기 때문에 서울에 관한 限 1972年 10月까지 擴大하게 되었다.

人口移動은 지난 10년간 都市人口成長에 크나큰 役割을 했다. 처음의 5年間에는 總都市人口成長에 대한 人口移動의 寄與는 自然增加에 의한 그것과 같았다. 이것은 서울시의 人口成長이 주로 純人口移動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都市地域의 人口成長은 주로 自然增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1960—1966년에 都市로 향한 純人口移動의 總量의 69%나 차지하여 韓國의 國內人口移動을 代表하였다.

都市化의 速度는 1960年代 後半에 加速化하였다. 純人口移動은 1966—1970년에 都市地

域의 總人口增加의 거의 $\frac{3}{4}$ 에 該當한다. 서울에서는 人口增加의 80%가 純人口移動에 의
한 것이다. 以前의 期間과는 달리 純人口移動은 다른 都市地域의 人口成長에도 커다란 役
割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同期間에 서울은 都市로의 純人口移動의 總量의 60%를 차지하
여 顯著한 位置를 維持하고 있다.

韓國의 都市人口增加에 대한 1970年 以後의 資料는 充分하지 못하나 서울에 대한 可能
한 都市人口成長의 構成要素分析은 韓國에 있어 國內人口移動의 비율과 과정에 대한 극
적인 變化를 暗示하고 있다. 서울에서 移入人口移動率이 漸次로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人口成長에 대한 純人口移動의 寄與도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要因이 풀이될 수 있다. 經濟成長率의 低下, 서울의 경제 붐의 下落,
無許可 建物에 대한 強力한 統制, 農業勞動力의 不足으로 因한 農業賃金の 上昇 등이 그
것들이다. 다시 말하여 서울은 1960年代末처럼 유일하고도 매력적인 引力을 갖지 못한다
는 것이다.

地方都市들이 지난 2年間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純人口移動率의 低下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나, 地方都市들이 韓國의 都市化過程에서 더욱 重大한 役割을 시작하는 것 같다. 政
府는 産業과 여타의 活動을 서울로부터 다른 地域으로 分散시키려는 措置를 취하고 있다.
韓國의 經濟가 現在의 沈滯期를 克服한다 하더라도 서울은 60年代末에 겪은 폭발적인 純
移入人口移動率에 미치지지는 못할 것이다.